

주담대 고정금리 7% 육박… “정책 고려 시 고정형 유리”

기준대출자, 변동형으로 갈아탈 때 DSR 규제 받아 한도 줄어둘 수 있어 금융위도 고정금리 대출확대 추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근접하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4.36%~6.74%로 나타났다.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연 3%대 중반에서 6%대 초반수준이다.

금리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도 영향을 미쳤다.

고정형 금리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말 3.499%에서 이달 13일 기준 3.687%로 0.188%포인트(p)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형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2월 기준 2.89%

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8%p 올랐다. 9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5년전 고정형 금리로 영끌해 집을 마련한 차주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년 주기로 재산정되는데,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는다. 당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51~2.57%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고정형 금리로 집을 마련한 차주들이 재산정시 고정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대출자가 고정형에서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탈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아 한도가 줄

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의 미래 위험을 반영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있다. 변동형으로 갈아탈 경우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돼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기관의 30년 만기 초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보유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와 채권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대출금리는 현재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또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면서 대출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엔비디아 ‘베라 루빈’ 조기 출하?… 국내 HBM4 주도권 경쟁 점화

루빈, 최대 6개월 조기출하 가능성
루빈 GPU, 테스트·검증 진행 중

SK하이닉스, 절반 이상 점유율 차지
삼성전자, 1c 공정으로 승부수 전략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플랫폼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의 실적 반영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4 시장 주도권 경쟁 역시 빨라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은행 에버그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기존 예상보다 3~6개월 빠른 시점에 출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부 고객사들이 2026년 2분기 말 루빈 출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관련 HBM4 메모리 수요도 조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루빈 GPU가 이미 제조 단계에 있으며 테스트 및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양산 과정에서 생산 역량, 설계, 하이퍼스케일러의 피드백, 열 관

리 측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루빈의 양산 역시 한층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발표하

며 선제 행보에 나섰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대응하던 삼성의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에 따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엔비디아 HBM 공급망은 SK하이닉스가 메인 벤더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의 이번 업계 최초 출하는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2%, 마이크론 21%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달 중 고객사 납품을 목표로 HBM4 제품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세대인 HBM3E와 마찬가지로 1bD램 공정 기반으로 HBM4를 제작 하되 로직에선 TSMC의 12나노 공정과 협업한다.

삼성전자는 HBM에는 재설계를 마친 1c 공정을 적용하고 로직에는 자체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HBM4 세대까지는 원가 구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단기간에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신 공정일수록 제조 비용이 상승하는 데다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1c 공정을 기반으로 차세대 HBM 경쟁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을 기점으로 HBM4 양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을 검증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초기에는 출하 속도보다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벤더가 누구인지가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보스턴다이나믹스 경영체제 개편… 연구 책임자 퇴진 잇따라

IPO 앞두고 조직 재정비 전망 제기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에서 주요 임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경영 체제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스코트 쿤더스마 보스턴다이나믹스 연구 담당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쿤더스마 부사장은 하버드대 공학 및 컴퓨터공학 조교수를 지냈으며 MIT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소에서 박사



스코트 쿤더스마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봇 연구 부문 부사장. /보스턴다이나믹스

후 연구원으로 활동한 로봇공학 전문가다. 그는 2018년 보스턴다이나믹스에 합류한 뒤 연구 조직을 총괄해왔고, 지난해 6월 로봇 연구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

했다. 이후 강화학습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접목하는 연구를 주도하며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을 총괄했다.

경영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설립때부터 핵심멤버로 활약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플레이터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7일부로 은퇴할 예정이다. 2019년 취임한 플레이터 CEO는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산업 현장 투입을 확대하고,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Stretch)’를 앞세워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 기반을 다져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아론 손더스 최

기술책임자(CTO)가 회사를 떠나 구글 딥마인드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 책임자와 최고경영자까지 연이어 물러나면서 조직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CEO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아만다 맥마스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EO 직무대행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연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조 현장 자동화와 물류 혁신, 미래 모빌리티와의 융합을 축으로 로봇틱스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그룹 내 사업과의 접점을 넓히며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IPO 추진과 관련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장재훈 부회장 직

속으로 사업기획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장 준비를 체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업공개와 이후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상용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기업 가치 평가액은 약 993억달러(약 145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틀라스는 최대 50kg을 들어 올리는 성능을 선보이며 산업 현장 투입 가능성을 부각했다. 사족보행 로봇 스팟 역시 최근 영국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위험 구역 점검 임무를 수행하며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